

전남산 수산물 '타르 불똥' 오염 무관해도 소비 외면

김 판매 등 줄어...설 앞두고 비상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타르 피해가 전남 서해안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설 대목을 앞둔 전남지역 수산물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해안 일부 피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전남지역 전체 생산량의 20%에도 못 미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 때문에 기피 대상으로 떠오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전남도 각 시·군 수협에 따르면 대표적인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재래김의 판매량이 타르 유입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완도수협의 경우 겨울철 한달 김 판매량은 2만2천 송 정도였으나 새해 들어 10~20% 가량 감소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재래김 도매가격도 5백~1천 원 가량 올랐으나 소매업자들은 제외한 일반 구매자들의 발길은 뜸한 상태다. 김 값이 오른 것은 소매업자들

이 타르 피해를 입기 전에 생산된 김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정착 일반 소비자들은 구매 자체를 꺼리고 있다.

풍암동 수산물유통센터의 한 도매업자는 "기름 피해 전 생산된 김을 사두려는 심리 때문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해마다 설이 돌아오면 수산물의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올해는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김뿐 아니라 다른 수산물들의 판매도 줄어들기 마찬가지다. 광주 이마트 해산물 코너의 경우 최근 조개류의 판매가 10~20% 줄었다.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굴비를 구입하기 위해 영광지역을 찾는 외부 유통업자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전남지역 다른 수협 공판장도 수도권 구매자들의 발길이 뜸 끊기고 거래처에서도 당분간 거래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전남도 내 타르 유입으로 김 양식장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전남산 김을 비롯, 다시마·미역·전복·교막류 등은 대부분 기름 피해를 입지 않은 남해안에서 생산되고 있어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무안, 신안 등 일부 타르 피해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는 전남 전체 생산량의 20%에도 못 미치고 바닷물고기 대부분도 먼바다에서 잡히고 있어 타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영광수협 유원환(40) 특관과장은 "영광 굴비는 제주도 아래 공해상에 서 잡은 무공해 조기만을 이용한다"며 "굴비의 품질과 명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동요 없이 구매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오열하는 유족 8일 오후 경기도 이천 냉동참고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이천시민회관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경인일보=임영수 기자

참변 지하실은 '밀폐된 화약고'

이천 냉동참고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총체적 人災

무려 40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냉동참고 화재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총체적인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하층 냉동창고는 탈출구가 부족한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데도 소방점검을 통과했고 화재당시 스프링클러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탈출구 '절대 부족' = 화재참사가 난 창고는 지난해 11월5일 준공허가를 받았고, 앞서 10월24일 소방시설 완비를 증명하는 소방준공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탈출구가 전면과 후면 1곳씩만 있어 사실상 밀폐공간인데 사고

시 대피가 쉽지 않은 이 창고가 어떻게 소방점검을 통과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불이 난 지하 1층은 면적 2만3천338㎡로 축구장 2배에 가까운 크기지만 전면 출입로 외에 대피로가 반대편에 1곳만 있어 사실상 '비상구' 없는 밀폐공간인 관계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8일 이천 냉동참고 '코리아2000'의 건축허가와 소방준공검사, 사용승인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소화전 '무용지물' = 화재 당시 이천 냉동참고 '코리아

2000'의 지하층에서는 스프링클러와 소화전도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났지만 창고에 설치된 224개짜리 물탱크와 스프링클러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더해졌다.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폭발과 동시에 건물이 붕괴되면서 스프링클러 등도 작동되기 전에 다 파손돼버렸기 때문에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전의식 부재 =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달 29일 끝난 우레탄폼(foam) 발포작업에서 발생한 가연성 높은 유증기가 작업이 끝나고 9일이 지나도록 창고 안에 가득차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냉동창고는 냉매제인 프레온가스와 단열제인 우레탄폼 등 인화성 화학물질이 산재해 화재에 취약한 '화약고'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장에서는 200ℓ 짜리 우레탄폼 연료 15통이 남아 있었고 8일 조사에서 불에 탄 용접기와 가스통도 3대씩 발견됐다. /연남뉴스



빛 독촉에 화물차 몰고 농산물 절도

○화물차를 이용해 남의 밭에 들어가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8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장모(여·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주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전력·수법·회수 등으로 볼 때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

○농산물 중간판매상인 장씨는 외상거래를 해오던 도매상들로부터 대금변제를 독촉받아 지난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영광지역 무 밭 등을 돌며 5차례에 걸쳐 무와 대과 등 78만5천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 기소. /최권일기자 cki@

태안 자원봉사자들

두통·호흡기 증상 호소

태안지역에서 기름제거를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두통과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구급 18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의료지원을 펼친 결과 접수환자 92명 가운데 두통 및 구토 증상을 보인 자원봉사자가 43명(47.8%)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호흡기 증상 33명(36.7%), 타박상 등에 의한 근육통 9명(10%) 순이었다.

한편 전남대병원 직원과 의료진 160여명은 9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남 서해안지역을 찾아 타르 제거 자원봉사에 나선다.

병원측은 타르 덩어리는 휘발성이 없어 직접 피부에 노출되지만 앉았다면 인체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의료봉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경찰차 부순 노조간부 7명 상대 손배소

경광경찰은 8일 불법시위 도중 경찰차량을 부수 손해를 입힌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간부 7명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 집회 허가가 안난 '제1차 범국민행동의 날' 서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영광요금소로 진입하려다 이

를 막는 경찰버스 유리창과 시위 차량 등을 파손해 1천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당시 경찰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간부 1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어로금지구역 고기잡이 2명 사망·실종

어로행위 금지 구역인 주암댐에서 고기를 잡던 동네 주민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8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30분께 순천시 송광면 유격마을 주암댐에서 이 마을 주민 배모(52)씨와 서모(59)씨가 소형 FRP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실종됐다.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이던 경찰과 119구조대는 이날 오전 배씨의 시신을 발견, 인양했으나 서씨의 행

방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서씨도 함께 물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 어로탐지기 등을 동원해 침몰한 배의 위치를 찾고 있지만 저수지 평균 수심이 40m로 깊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어로행위가 금지된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배가 뒤집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가족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주·전남, 냉동·냉장창고 60여개

소방본부 특별 안전점검 실시키로

40명의 희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냉동참고 화재사고와 관련 광주·전남지역에도 60여개의 냉동·냉장창고가 가동 중이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도소방본부는 8일 각 소방서에 이들 창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광주시내에는 광산구 첨단지역 10개를 비롯 모두 19개의 냉동·냉장창고가 있다. 이 가운데 서부도매시장과 각화동 도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적 소규모이며, 올해 신축되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산지유통

센터에도 냉동·냉장창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도에는 해남 12개, 나주 6개, 목포와 순천 각 4개 등 모두 42개의 수산물·농산물 냉동·냉장창고가 가동 중이며 연면적은 660~1천300㎡ 규모이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지역 냉동창고는 규모가 크지 않고 그 수도 적은 편이지만 이천 사고와 관련 8일 각 소방서에 즉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중형기자 gilee@kwangju.co.kr

광주·전남, 냉동·냉장창고 60여개 소방본부 특별 안전점검 실시키로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중형기자 gilee@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수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62 / 02-722-0100

11255300-9999